



도일 김용욱씨

## 철학과 만난 논술 깊고 풍부해졌네

도일 선생이 들려주는 '논술에 힘을 주는 철학'

저자는 박정희 前 대통령을 예로 든다. 그는 논술이라는 주제에서 박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성'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특이한 해석속으로 들어가 보자. 박정희는 4·19학생혁명의 성공을 보면서 미국이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즉 그의 군사쿠데타 결심은 4·19혁명 외중에 이미 있었다는 뜻이다.

보통학교교사, 일본군장교, 조선경비대 장교, 남로당 당원, 동료배신, 하극상 쿠데타로 이어지는 박정희의 삶에 대해 저자는 끊임없는 배신과 변신의 여로였다고 단정한다.

유신체제의 경제발전이 아담지도자들이나, 시인들, 사상가, 민중지도자들을 향해 가한 그의 모든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오직 저항만이 있을 뿐이기에 70~80년대에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오히려 수차례씩 여겨졌다고 시사한다. 그리고 이런 지적 흐름이 오늘날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둘째 대목 '논술과 철학의 문제'는 철학적 사유가 논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철학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철학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된다' '철학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 '종교적 신앙은 사유의 단절이다' '핵심적 개념만 집중적으로 이해하라' '좋은 선생님을 물어라' 등을 주문한다.

셋째 대목과 둘째 대목의 내용은 저자 도일 김용욱이 EBS논술강의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 50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광범한 논술주제를 압축적으로 담아

낸 것이다. 논술주제는 '폭력의 거부' '일본의 만행' '인도주의와 교조주의' '독립의 의미' '친일파 항일' '6·25전쟁은 8·15해방에서 이미 시작' '김일성' '북한사회와 남한사회' '박정희의 생애' '4·3 제주민중항쟁' '4·19와 5·16' '목크의 관용론' '인도철학' '한국철학' '청소년의 종교교육' '서양 철학사를 묶고 있는 종교의 사슬' 등이다.

이어 셋째 마당 '논술문장론'은 학생들의 문장을 교정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원리를 밝힌 것이다. 논술은 말이 아닌 글이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를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가나니 문어적 전통을 수용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명료하게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문장론의 핵심은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그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의 대상층 기준, 글씨 잘 쓰기, 의미의 면적이 좁은 단어를 선택, 머릿속에서 먼저 대강을 구성, 명사적 구성법보다는 동사적 구성, 교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논술과 철학강의> 2권은 1986년에 지은 <중고생을 위한 도일선생의 철학강의>를 20년만에 완전히 다시 쓰다시피 보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동·서철학사의 제문제에 아주 절절한 우리 일상적 체험의 실례를 통해 평이하게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철학의 주요개념을 파악한 학생들은 모든 논술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루는 주제는 '철학과 역사의 차이' '철학은 무규정적이며 동·서가 없다'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 '베이컨의 이상론' '아름다움이란?' '교와 선' '돈오와 점수' '돈오없는 점수는 공허하고 점수없는 돈오는 맹목적' '기화학적 점' '월이란?' 등이 실렸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논술과 철학강의1·2 김용욱 지음  
통나무 | 각권 8500원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의미의 논술은 개인의 의사를 글로써 개진해 이성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한다.

도일 김용욱씨는 논술의 일차적이고 상식적인 의미가 '합리적 소통'이라고 말한다. 논술은 우리사회에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어는 이미 논리적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인 소통의 이면에는 '폭력의 거부'라는 우리 인간사의 중요한 명제가 깔려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세기를 되돌아보면 불행히도 인간 이성이 차지할 여지가 없었던 억압과 폭력의 역사였다.

그는 논술의 본질적 문제의식이 폭력에 대한 항거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21세기를 논술의 세기로 규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배제하고 누구하고든지 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술을 통해야 한다는 것.

<논술과 철학강의> 1권 첫째 대목에서는 '논술과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

### 네티즌강추

숨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

산에서 살다 최성현 지음, 조화로운살

산을 오르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산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날 산 정상에 서서 사시는 분을 보고 참 좋으시겠다 했지만 정작 내가 산에서 산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최성현의 '산에서 살다'를 읽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영향을 받아 자연농법을 실천하며 산에서 산다고 한다. 도시에서 문명의 혜택을 잔뜩 받고 사는 내가 전기도 없이 산속에서 살아가는 저자의 속 깊은 뜻과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그의 삶의 방식을 글로 통해 접하면서 처음에 '글쎄'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하다가 '참 깨어 있는 맑은 삶을 산속에서 일구어 내고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었다.

글 구석구석에 그의 맑은 삶의 실현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엿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산 속의 생활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고수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짐을 느끼게 된다.

숨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기에 충분했다. 나머지는 모두 욕심이었다. (새내, aladdin.co.kr/blog/mypaper/940649)



안홍 산골로 내려간 박도 선생의 정겨운 인생 이야기

그 마을에서 살고 싶다 박도 지음, 바보새

<그 마을에서 살고 싶다>는 도시 생활을 접고 안홍 산골로 내려가 지내는 얘기를 담은 수필집이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사표를 쓴 뒤 전원으로 유명한 안홍 산골로 내려간 그. 오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장작을 때 썰감으로 쓰고 농약 하나 안 쓰는 유기농법을 하며 시골 생활을 시작한 그의 모습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전하는 산골 얘기는 우울한 모습도 많고 즐거운 얘기도 있다. 아이들이 다 떠나버려 폐교되는 학교들, 유기농으로 하면 수확량이 너무 적어 농약과 제초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농업 현실, 그렇게 피딱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조할 빛에 허덕이는 농사꾼들. 이런 현실을 소상히 전해 주는 글은 그 일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책은 산골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이 살아 온 과거 경험담들도 재미나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재물과 권력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옛말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었던가. 박도 선생이 안홍 산골에서 전하는 얘기들은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말해 주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을 울린다. (지니, blog.yes24.com/thecure8/216149)



### 책속의 밑줄긋기

○...도자기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종교이고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이야기에 도자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많은 점이 많다고 내가 거듭했다.

흙을 고르고 빚고 무늬를 새기고 말리고 굽는 도예의 과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거친다.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나서야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 태어난다.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인간들의 삶과 닮았다.

사람도 이 생을 하직한 후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일 매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다음생이 결정되는 것은 도자기와 같다.

우주의 생성과정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으로 설명된다. 도자기 역시 흙에 물을 넣고 반죽한 것을 공의 경지인 무늬로 빚어 무늬를 넣고 불로 구워낼 때에는 공의 조절로 색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우주생성 원리와 같다.

-<흙에서 빛으로> 16쪽에서, 이순이 지음, 종이거울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빔으로 산사야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수조청**

- 산수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수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수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성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수참죽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세가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랐 대인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 054)372-3166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

칠 수렛 삼매 채행 긴강비법 노라수 완전공개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호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치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돌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압정덩어리의 필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단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땅이 나며, 뱀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죽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덜어 없게나, 손가락 발가락미디, 무릎, 허리, 목이 깨일거나, 등허리 피부가 경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단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출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운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상애를 체험합니다.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발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호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수행 중심 교육 도량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열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교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골반, 척추를 바로잡는 '골반보정운동'.

우주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삼시선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초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읍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곳 동해사  
**033)672-2900**